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 신구약 중간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카비 혁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이 계속 되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여러 분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유대는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생기기부터 망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스몬 왕조의 시작

마타디아로 시작된 유대의 마카비 혁명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자 유대 통치자인 시몬이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가 어비지의 뒤를 이어 유대의 대제사장과 통치자를 겸직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있어서 마타디아에서 시몬까지의 통치를 마카비 혁명이라 부르고, 요한 히르카누스 때부터는 하스몬 왕조라 부릅니다. 하스몬 왕조 때부터 통치자가 대제사장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시대까지 대제사장이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는 마타디아의 손자답게 용맹스럽게 정복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특히 성경 '사무엘상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주신 기업!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마리아성을 1년간 포위하여 정복하고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플리스를 약탈하여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 죽였습니다. 통치 초기에 시리아에 넘겨줬던 해안 도시들을 다시 정복하고, 에돔 왕국인 이두매 지역까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두매 사람들에게 학살당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때 개종한 사람 중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Antipater, an Idumean)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요한 히르카누스의 신하가 되어 후에 유대에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 히르카누스는 에돔을 정복한 후 요새로 알려진 페트라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스스로를 사두개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화 즉, 동전을 발행하였는데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 B.C 104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2. 아리스토불로스 1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요한 히르카누스는 자신의 아내가 뒤를 이어 여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히르카누스가 죽자 그의 장남 아리스토불로스 1세는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굶어 죽이고 세 동생들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넷째 동생도 자신의 부하들이 의심스러워하자 암살해 버렸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이러한 일을 벌어졌습니다. 아리스토불로스 1세는 왕정 정치를 하기 위하여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해 온지 꼭 481년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하스몬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첫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리스토불로스 1세는 '필헬레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는 헬레니즘 애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정복군을 조직하여 갈릴리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유대 율법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이두레아(Iturea)를 공격하여 그 땅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불로스 1세는 막내동생을 살해한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병에 걸리고 맙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창자가 썩어들어 피를 토할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불로스 1세는 1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감옥에서 아리스토불로스의 세 동생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중 나이가 많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직도 함께 감당했죠. 그런데 율법에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형의 아내였던 자와 결혼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축제의 화관에서 올리브 나무가지를 뽑아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에게 퍼붓듯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죽어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8천 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의의 교사'라고 알려진 경건한 지도자들을 핍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제사장이란 별명을 붙여줬죠. 그러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임종 시에 경건한 지도자들을 핍박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반면 그는 다윗 시대 만큼 영토를 확장하여 탁월한 군사지략을 보여줬습니다. 바리새파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31년간 통치하다가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사두개파 고문들을 해고시키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3. 살로메 알렉산드라, 히르카누스 2세, 아리스토불로스 2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죽자,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리스토불로스 1세의 아내였다가, 그가 죽자 그의 남동생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던 여인이었죠. 그녀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여왕과 화친을 맺은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명칭만 여왕이었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실권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자인 자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자신이 하고, 대제사장은 장남인 히르카누스 2세가 맡아 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죠. 반면 막내인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매우 야심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왕과 대제사장 모두가 되고 싶었기에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73세의 나이로 9년간 유대를 통치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에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형 히르카누스 2세를 제사장 자라에서 내쫓아 평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대로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전쟁영웅 품페이우스가 시리아를 포함한 동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품페이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장수 중 한 명인 스카우루스를 시리아로 내려보내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합법적으로 왕이 없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시리아를 로마의 손에 넣으라 명령한 것이죠. 품페이우스의 명령에 따라 스카우루스는 시리아를 점령하려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때 마침 시리아는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로스 2세의 권력 싸움으로 혼란에 빠진 유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우루스도 곧바로 시리아에서 유대로 내려갔죠.

그러자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스카우루스에게 당신을 도와줄 것이며 돈을 주겠다는 입장을 사신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스카우루스는 두 형제 가운데 아리스토불로스 2세를 선택했습니다. 스카우루스는 아리스토불로스 2세에게 400달란트를 받고, 히르카누스 2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권력자 아레타스에게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로마에 대한 대항으로 여기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는 시리아로 돌아갔죠.

얼마 후 품페이우스가 아르메니아에서 출발하여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왕도 없이 무정부 상태였던 시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였죠. 이 소식이 시리아에 전해지자, 이집트와 유대가 품페이우스에게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냅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신은 품페이우스에게 금화

4천개의 값이 나가는 왕관을 선물하였고, 아리스토불로스 2세도 500달란트 값이 되는 금 포도나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각자 폼페이우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히르카누스 2세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보냈고, 아리스토불로스 2세는 니코데무스를 보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고소장을 폼페이우스에게 제출한 것이죠. 그런데 폼페이우스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중이었기 때문에 둘이 보낸 고소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을 보낸지 다음해에 폼페이우스는 시리아로 돌아왔는데요 그때가 되어서야 고소장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향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폼페이우스 앞에서 서로 자기가 유대 통치자라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두 형제 대신 차라리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리스토불로스 2세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약속의 번복으로 인해 결국 폼페이우스는 3개월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폼페이우스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들어갔으니 유대인들은 매우 화가 났겠죠? 그러나 성전의 값진 기물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성전 제사는 계속해도 된다 허락하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하여 아리스토불로스 2세와 그의 두아들과 두딸을 로마로 압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가 다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사두개파는 좀 더 유능한 아리스토불로스 2세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함으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가면서 유대에서 일천달란트도 더 되는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로스 2세의 6년에 걸친 내전은 막이 내립니다. 이 내전의 실질적인 승자는 히르카누스 2세의 사신이자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였습니다. 안티파터는 로마에 복종하였고 이는 그와 그의 가문에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티파터가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한 덕분에 폼페이우스는 안티파터와 그의 두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 땅 전체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4.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 대왕

로마에 끌려갔던 아리스토불로스 2세와 그의 장남 안티고누스는 로마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움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아리스토불로스 2세를 다시 사로 잡아 로마로 데려가 결국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안티고누스는 간신히 도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통치제제를 공화정으로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독재하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집정관이나 원로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나라 일을 이루어나갔습니다. 특별히 1차 삼두정치라고 하여,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명이 비밀리에 결성한 정치세력을 만들어 이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유력자였던 세사람이 원로원의 눈을 피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중 크라수스는 파르티아와 전쟁을 위해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이기는 했지만 세명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약했습니다. 크라수스는 3년간 진행되었던 노예와 검투사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던 것 외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 군사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원정에서는 크라수스 아들도 출전하였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끼던 부하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로 가면서 예루살렘 들려 성전에서 이천달란트와 팔천달란트가 나가는 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전쟁 중에서 먼저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돈과 금이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많은 현금을 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전쟁중에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던 크라수스는 파르타아 원정에서 패하고 맙니다. 모든 군사를 잃고 본인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끼던 크라수스의 아들도 죽게 되죠.

크라수스가 죽자 삼두정치에 균衡이 생기게 됩니다. 삼두정치의 남은 두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품페이우스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접고 황제가 되어 다스릴거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페이우스에게 칼을 바치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습니다. 2년 간의 내전은 로마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유대의 통치자이자 대제사장이었던 히르카누스 2세는 그의 신하 안티파터를 통해 유틀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을 보내어 전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의 내전에 품페이우스보다 유틀리우스 카이사르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로 인해 품페이우스는 로마에서부터 계속 퇴각하여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있던 프톨레미 왕가는 품페이우스를 죽여 머리를 자른 뒤, 머리는 유틀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바치기 위해 소금물에 절여두고 나머지 시체는 해안가에 방치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2년간의 치열한 내전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로마의 통치자가 된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는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그러자 유대에 있던 안티파터는 시리아로 가서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는 큰 도움을 준 유대에 감사를 표하며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히르카누스 2세에게는 그가 원하던 대제사장직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를 극진하게 대하며 유대 행정장관 자리와 로마 시민권도 함께 주었습니다. 유틀리우스 카이사르가 시리아에서 일을 끝내고 로마로 갈 때 안티파터는 시리아 국경까지 배웅하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유대의 행정장관이 된 안티파터는 자신의 장남 파사엘루스를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이제갓 25살이 된 차남 헤롯에게 맡겼습니다.

장남인 파사엘루스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 없이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했으며, 갈릴리 위쪽 시리아 지역의 도적떼를 소탕하여 시리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티파터는 대제사장 히르카누스 2세가 주는 돈을 로마에 있는 유틀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보낸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틀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 신임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얼마 후 유틀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안티파터는 든든한 후원자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공헌한 카시우스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밀려 시리아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리아 총독이라 주장하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티파터는 카시우스 롱기누스를 위해 많은 조공을 거두어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카시우스 롱기누스는 유대에 와서 자신의 마음대로 헤롯을 시리아 전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고는 700달란트를 빼앗아갔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티파터는 말리쿠스라는 열광적인 유대인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이에 로마에서는 유틀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와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친하게 지는가 싶었더니 내전을 치르면서 권력싸움이 심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안토니우스 쪽이 힘이 썼습니다. 이때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이에

안토니우스는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해주었습니다. 분봉왕이란 왕보다 낮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이죠.

안토니우스는 과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있던 시절 헤롯의 안티파터와 우정을 맺었기에 그의 아들들도 매우 아꼈기에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헤롯의 정치력을 매우 높이 인정하였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내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 유대의 유명인사 100명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 헤롯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얼마 후 파르티아가 유대로 쳐들어왔습니다. 파르티아는 아리스토불로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이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안티고누스도 파르티아를 이용하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쳤죠. 파르티아와 안티고누스는 대제사장 히르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엘루스를 생포하여 잡았으나 차남 헤롯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일단 히르카누스 2세의 귀부터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신체가 온전해야 했기 때문에 귀를 잘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왕이 되지도 못하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잡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나 헤롯의 형인 파사엘루스가 있는 힘을 다해 헤롯에게 도망가라는 연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안전하게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자, 스스로 돌에 머리를 박아 자결하였습니다.

헤롯은 온갖 고생을 하며 이두매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걸쳐 마침내 로마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나죠.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자기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주면 막대한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임명한 헤롯을 죽이려 한 안티고누스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을 유대왕으로 임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원로원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이번 기회에 파르티아까지 혼쭐을 내주자며 헤롯을 돋기 위해 설득했습니다. 이는 받아들여지고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 3만명의 보병과 6천기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세웠고, 안티고누스를 사로잡게 됩니다. 헤롯은 로마법에 따라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압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보낸다면 로마가 살려두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안토니우스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하스몬 왕조는 126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나고 유대의 권력은 이두매 사람 헤롯의 선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부패하는 법이죠. 하스몬 왕조는 두 가지 커다란 범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두매 지역을 불법적으로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두매 지역은 구약 시대의 애동을 말합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사해바다 동편에는 모압 족속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애동 족속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옛 영토를 회복하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동 땅 즉 이두매 땅은 유대인들의 영토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발을 들어서는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두매를 침략하는 명분으로 선교를 제시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할례를 받고 서로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유대인과 애동 족속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하셨죠.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특히 바리새인들을 많이 괴롭혔죠.

두번째는 왕이 대제사장의 일을 겸직한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전사한 후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후회에 질책을 받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아예 출신 지파부터 달랐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는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왔고,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독 집안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마타디아의 후손입니다. 마타디아는 레위지파였지만 사독집안이 아니었음에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었죠. 더군다나 왕이 대제사장을 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죠.

그리하여 결국 하스몬 왕조는 망하게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나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강의를 들으시거나, 강의안을 참고하여 가계도를 직접 노트에 적어보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과 로마제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다음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